

☰ 홈 > 뉴스 > 사람과 일상 > 행사

건축사협회 창립 45주년 기념 건축문화축제

2010년 09월 02일 (목) 15:04:22

임병식 기자 ✉ montlim@sjbnews.com

전라북도 건축사회는 창립 45주년을 맞아 전북대 삼성문화관과 전주향교에서 1~4일까지 건축 작품전과 초청 강연회, 기념식 등 '건축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건축 작품전에는 전라북도 건축사회 회원 작품은 물론 중국 강소성 감찰설계협회 회원 작품과 독일 건축가협회 회원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 중이며, 이를 통해 건축설계의 중요성과 전라북도 건축사들의 역량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2일 기념식 행사에서는 건축사협회 발전과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건축인을 표창하고 격려했다.

이성엽 전북건축사협회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건축설계에 종사하는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전북 고유의 지역성과 다양한 건축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건축사들의 열정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건축사 22작품, 독일 20작품, 중국강소성 14작품 등이 전시되는 건축설계작품 국제교류 전시회는 4일까지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진행 중이며, 1일 초청 강연회에서는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 대표 유춘수 건축사의 초청 강연회가 있었다.

/임병식 기자 montlim@sjbnews.com